

빙상폭력·컬링 사유화 등 끊임없는 사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자체 해결 혁신안 발표

“체육 원로·전문가로 인사위원회 구성...명단은 공개 못해”



2020년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다. 하지만 체육계는 잔치를 즐길 수 없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2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정과 쇄신을 다짐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사표 낸 일부인사들 대부분 임기 끝 선수총장 내정설? 확정된 것 없다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원년 만들것”

대한체육회 이기흥(63) 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체육계 각종 비리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자체 해결 혁신 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게임 야구, 농구 국가대표 선발 논란, 컬링의 조직 사유화, 빙상의 폭력 논란 등 각종 체육비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며 밝혔다. 덧붙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협의 하에 국가대표선수촌 기강 확립, 체육 단체 비위근절, 회원종목단체 투명성 강화, 체육회 인적자원 쇄신 등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적폐를 근절하고 체육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는 2020년이면 대한체육회가 100주년을 맞는다. 이제까지의 여러 문제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자정과 쇄신을 통해 오는 2020년을 새로운 100주년을 맞이하는 원년으로 삼자는 계획으로 쇄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밝힌 주요 쇄신안 중 핵심은 역시 대한체육회의 인적쇄신이다. 이 회장은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조직에 새바람을 주입 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체육계 원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

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일부 인사들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 회장은 “보도된 분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저에게 사의를 표했던 분들이다. 따로 사표는 받지 않았다”며 “내년 1월이면 대부분 임기도 만료되는 분들이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물의 진전선수총장 내정설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 후보들만 11명이다. 그 분들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만 도 상당하다”고 “또 후보들에 대한 보고도 27일이나 되어야 받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인적자원 쇄신의 핵심 역할을 맡을 ‘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다. 이 회장은 “인사추천위원회는 체육 원로·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7명의 위

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명단을 공개하면 그 분들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몰려 그만두시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작 대한체육회 자체에 제기되고 있는 ‘조직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다고 본다. 똑같은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가 팀을 꾸릴 때(내가 취미했을 때는) 체육회 통합이 이제 막 된 상태였다. ‘머리’는 통합이 되어도 ‘발’에서는 통합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고 되돌아왔다. 이어 “선수촌 이전, 평창올림픽 등 집중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자정하고, 앞으로도 쇄신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골프 선수야? 뉴시꾼이야?’ 최효성은 올해 일본프로골프 투어에서 1승을 올리며 성공적 한 해를 보냈다. 그의 독특한 스윙에는 ‘남시꾼 스윙’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도 이 남시꾼 스윙을 2018년 최고의 화제로 선정했다. 사진제공 | KPGA

美 골프다이제스트 ‘최고의 화제’ ‘내년 마스터스 초청 후보로 강추’

‘남시꾼 스윙’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최효성(45)이 미국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18년 최고의 화제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다이제스트는 20일(한국시간) 올해 골프 관련 소식 가운데 사람들로 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이끌어낸 10대 장면을 꼽았는데, 최효성의 독특한 스윙이 1위를 차지했다. 최효성의 ‘남시꾼 스윙’은 스윙 후 동작이 마치 남시꾼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순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이름 붙었다. 최효성은 11월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카시오 월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특유의 스윙과 함께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최효성의 스윙장면을 첨부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다 엄지손가락을 잃었고, 그 때문에 20대까지는 골프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떻게 지난 오랜 시간동안 광범위한 관심을 받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골프의 발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2019년 마스터스 초청 대상에 최효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훈준 기자

JLPGA의 여왕 신지에 ‘3관왕’ 위업

첫 대상에 영예상·베스트샷까지 한·일 동시 대상 첫 진기록 달성

신지에(30)가 생애 처음으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대상을 품에 안았다. 동시에 영예상과 미디어 베스트 샷까지 수상하며 3관왕에 등극했다.

신지에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JLPGA 투어 대상 시상식에서 메르세데스 포인트 1위자격으로 대상을 안았다. 2014년 열도 진출 이후 최초 수상이다. 또한 JLPGA 투어는 올 시즌 메이저 3승(살롱파스컵, JLPGA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한 신지이를 위해 영예상을 신설하고 초대 수상의 영광을 안겼다. 이어 필드 위에서 최고의 샷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미디어 베스트 샷까지 신지이의 차지됐다.

신지에는 “꿈에 그리던 상이다.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다. 다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많은 부분에 도전하겠다”며 “앞으로 JLPGA 투어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골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부상은 고급 외제차였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는 신지에는 “벌써부터 새 차로 경기장에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며 밝게 웃기도 했다.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로 데뷔하면서 대상과 신인왕을 동시에 휩



2014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무대에 진출한 신지에는 올 시즌 메이저 3승의 영광을 누렸다. 신지에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JLPGA 투어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포함 3관왕에 오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상 트로피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신지이다. 사진제공 | KPS

쓴 뒤 이듬해 대상 2연패에 성공했던 신지에는 이번 수상으로 한일 동시 대상이라는 진기록도 남기게 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선 안선주(31)가 삼금왕 타이틀(약 1억8078만원·18억원)을 가져가면서 한국 선수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모두 빛냈다. 안선주의 삼금왕 등극은 2010년, 2011년, 2014년에 이은 통산 4번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배구 (20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순위	팀						
1	GS칼텍스						
2	한국생명						
3	IBK기업은행						
4	도로공사						
5	인삼공사						
6	현대건설						
●부문별 중간순위							
순위	선수	팀	득점	세트당 블로킹			
1	어나이	IBK기업은행	397	1	양효진	현대건설	0.84
2	통시아	한국생명	333	2	한수지	인삼공사	0.66
3	박정아	도로공사	313	3	김세영	한국생명	0.64
4	이재정	한국생명	278	4	정대영	도로공사	0.61
5	알리	GS칼텍스	245	5	김희진	IBK기업은행	0.55
NBA (20일)							
●경기결과							
피닉스 111 - 103	보스턴	부루클린 96 - 93	사카고				
밀워키 123 - 115	뉴올리언즈	디트로이트 129 - 123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131 - 109	뉴욕	포틀랜드 99 - 92	멤피스				
유타 108 - 103	골든스테이트	토론토 99 - 96	인디애나				
휴스턴 136 - 118	워싱턴	오클라호마 132 - 113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129 - 90	올랜도	살럿 110 - 99	콜라비엔드				

해외축구 (20일)						
●분데스리가						
팀	경기수	승	승	패	무	득점
1	도르트문트	16	39	12	1	3
2	바이에른뮌헨	16	33	10	3	3
3	바이에른뮌헨	16	33	10	3	3
4	라이프치히	16	28	8	4	4
5	프랑크푸르트	16	27	8	5	3
6	볼프스부르크	16	25	7	5	4
7	호펜하임	16	24	6	4	6
8	헤르타베를린	16	24	6	4	6
9	브레멘	16	22	6	4	4
10	레버쿠젠	16	21	6	7	3
11	마인츠05	16	20	5	6	5
12	프라이부르크	16	18	4	6	6
13	아우구스부르크	16	15	3	7	6
14	샬케04	16	15	4	9	3
15	뒤셀도르프	16	15	4	9	3
16	슈투트가르트	16	14	4	10	2
17	허노버96	16	11	2	9	5
18	뉘른베르크	16	11	2	9	5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바이에른뮌헨 1 - 0	라이프치히	마인츠05 2 - 2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1 - 1	허노버96	레버쿠젠 2 - 1	샬케04			
브레멘 1 - 1	호펜하임					
NHL (20일)						
●경기결과						
피츠버그 2 - 1	워싱턴	콜로라도 2 - 1	몬트리올			

주말 프로농구			
●2018-2019 SKT 5GX KBL			
오리온	〈고양체육관〉	삼성	
21일	오후7시30분, MBC스포츠포러스		
인삼공사	〈안양실내〉	SK	
22일	오후7시30분, IB스포츠, MBC스포츠포러스2		
DB	〈원주종합〉	KT	
22일	오후3시, MBC스포츠포러스		
LG	〈창원실내〉	KCC	
22일	오후3시, IB스포츠		
현대모비스	〈울산동천〉	전자랜드	
22일	오후5시, MBC스포츠포러스		
KCC	〈전주실내〉	삼성	
23일	오후3시, IB스포츠		
오리온	〈고양체육관〉	인삼공사	
23일	오후3시, MBC스포츠포러스		
LG	〈창원실내〉	SK	
23일	오후5시, MBC스포츠포러스		
주말 여자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21일	삼성생명	〈용인실내〉	우리은행
21일	오후7시, KBSN스포츠, SPOTV2		

22일	신한은행	〈인천도원〉	KB스타즈
22일	오후5시, SPOTV2		
23일	KEB하나	〈부천실내〉	삼성생명
23일	오후5시, SPOTV2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남자프로배구			
21일	현대캐피탈	〈천안유관순〉	삼성화재
21일	오후7시, SBS스포츠		
22일	대한항공	〈인천계양〉	한국전력
22일	오후2시, SBS스포츠		
23일	KB손해보험	〈의정부체육관〉	우리카드
23일	오후2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22일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현대건설
22일	오후4시, KBSN스포츠		
23일	도로공사	〈김천실내〉	GS칼텍스
23일	오후4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메트릭스 ●2019 국가대표 선발전(경북 청송국민체육센터, 오전9시30분)			